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9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62 호

총기 50년 종조멸도절

종령 법어



종령 법공 대중사

오늘은 한국 밀교의 대표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조님의 열반을 마음 깊이 추산(追善)합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열반에 드신 날을 총

님의 열반을 진정으로 추선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재세시에 마음 닦는 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과 안락과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능히 악한 데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가 길이 지혜 있는 참 스승이 되어서 원만 청정한 과보를 속히 증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용맹한 용사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마음을 닦고 조복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자 불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청정한 마음이 참 스승

지중에서는 멸도절(滅度節)이라고 합니다. 멸도(滅度)는 열반과 같은 말로서,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합니다.

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남은 육신이 사라짐으로써 가능하기에 육신의 멸함을 일러서 완전한 열반, 즉 반열반(般涅槃)이라 하고, 멸도(滅度)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멸도란 육신이 멸하여 번뇌와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경계를 말합니다.

오늘, 종조님께서 입적하신 멸도절은 종조님의 육신이 멸한 날이기도 하지만, 법통이 계승된 날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종조님의 정신과 가르침, 법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멸도절을 맞이하여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통해 정진하고 정진해야겠습니다. 그 길이 종조님의 유훈을 만드는 길이며, 종조

또한, 종조님께서는 ‘정도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 불토(佛土)가 청정할 것이다. 세상을 구하고 다스리는 길은 오직 바른 마음이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열반 4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승단과 교도가 한 마음으로 종조님의 열반을 추선함은 물론이요, 종단의 유구한 발전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마음 닦는 수행을 다 함께 생활화합시다.

종조멸도절의 추선불사에 동참하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보살님, 각자님들의 수행과 정진에 범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더불어 가지신력이 원만 구축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50년 9월 8일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원정 대성사 일대기 ‘설판재자’ 공모불사

출간 앞두고 오늘부터, 12월 15일 봉정 기념 예정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오는 12월 발간될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1907~1980) 일대기의 출간을 앞두고 ‘설판재자(設辦齋者) 공모불사(이하 설판)’를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설판은 대성사님의 삶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 전법의 역사를 길이 전할 역사적인 출간을 알리며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엮는 불사에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이를 받든다는 취지로 계획되었다. 대성사의 일대기 발간은 종단사 처음이다.

설판은 보통 불가에서 봉행하는 기도와 법회, 불공, 불사 등을 불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권선하는 나눔의 방식이다. 설판을 권선이라고도 하는데 자신

만 법회와 불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불자들에게도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동참을 권유해 공덕의 탑을 함께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판재자’는 바로 이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한다.

금번 일대기 출간 설판재자 동참금은 한 등(1구좌) 1만원이며, 동참자는 일대기 책 뒷면에 이름이 수록되며, 출간과 동시에 자택으로 배송된다.<상세 12면 참조>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창종 50주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교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대성사님의 일대기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며, “금번 일대기 설판불사 범공양 인연 공덕으로 대성사님의 큰 뜻이 우리 곁에 온전히 나

투시기를 서원합니다.”고 출간에 관한 의미를 전했다.

현재 일대기는 원고가 완료되어 종단 내 스승과 유족 등 관계자들로부터 감수가 완료되는 시점이며, 일부 수정을 거쳐 제작에 들어간다. 편집은 불교서적 전문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맡았으며, 오는 12월 15일 ‘봉정 기념식(가칭)’을 계획 중이다.

금번 일대기는 말법시대 밀법으로 수행의 근본을 세운 원정 대성사님의 삶을 통해, 현대 한국 밀교 태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총지종의 종지와 수행법, 밀교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대성사 부친 손기현 님, ‘독립유공자’ 포상

광복 76주년 맞아 훈장과 대통령 표창 유가족 품으로

광복 76주년을 맞아 불교총지중 창종주 원정 대성사의 부친 고 손기현(孫基賢, 1883~1942)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재동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는 지난해 종조 일대기를 편찬 중 손기현 님이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 후손 미상의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바 있다.(2020년 8월 호 총지신문 1면)

이에 따라 유가족은 1년 여 간의 노력으로 고인의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전달 받았다.

<관련기사 11면>



종/조/법/어

정통밀교 입교 하여 믿고 행해 나가야만
그 가정을 보존하고 장원하게 이어간다

지 면 안 내

2면 내 눈높이로 읽는 소의경전 <2>
6면 기획연재/원정 대성사 일대기<1>
7면 BBS불교방송 통리원장 특별대담

알림

임시총의회 회의 개최

일시 : 총기 50년 9월 7일 (화) 오후 1시
장소 : 불교총지중 통리원

중앙총의회의장 우인 정사 합장

제41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날짜 _ 총기 50년 9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_ 총지사 원정 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내 눈높이로 읽는 소의경전 <2>

대일경_주심품②

법문의 이해를 돕는 사전지식

지난 호에 법문의 이해를 돕는 사전 지식 1) 마음: 알아지는 작용, 알아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 마음(알의 작용)은 찰나적 존재이며 항상 대상과 함께 일어난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생겨나는 알인 마음들은 찰나적의 존재이며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대상과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떠한 것이라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때는 실제 있는 것을 마음이 해석하여 알아집니다. 우리 앞에 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는 분명 실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고 순식간에 무엇이 있다고 느끼고(수:受) 그것이 꽃이구나 라고 해석(상:想)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무덤덤하게 반응(행:行)합니다. 이런 알의 진행이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의 실상은 찰나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연속적인 알의 과정에 '나'라는 실재는 없습니다.

3) 나와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이름이 무엇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끊임없이 알고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현상이 '나'라는 존재의 실상입니다. 즉,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는 '나'라는 것은 마음이 해석한 관념이고, 실상은 육문(六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에서 끊임없이 알아지고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알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들이 오온(색수상행식)을 '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마음이 이해하고 해석한 관념이며 실재는 육문(감각기관)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우리의 마음이 만든(해석한) 관념이고 실재는 육문(六門)에서 끊임없이 알아지고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알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다. 즉 실상의 차원에서는 나와 너, 세계가 둘이 아닙니다.

4) 관념과 실재

실재를 아는 지혜 반야(통찰지)

육문(六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알의 현상이 나와 세계의 본질이며 이러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반야(통찰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앞에서 실재 있는 것을 법(法, 빠라마타)이라 하고 우리 마음이 해석한 것을 관념(뻔야따)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아무리 괴롭고 복잡한 문제도 실상은 순간순간 생겨나는 알일 뿐이고 이 실상을 아는 지혜(반야般若)가 없으면 마음이 해석한 관념에 따라 마음이 탐진치 삼독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큰 괴로움이라고 여겨지는 생로병사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등은 이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내 주는 동아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야를 얻을 수 있을까요?

5) 반야를 깨치는 수행

통찰수행 (위빠사나: 삼밀관행)

먼저 수행은 '마음을 좋게 하는 일' 즉 탐진치 삼독심의 안좋은 마음을 탐진치 없는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집중명상(지止, 사마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수행

사마타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내게 알아지는 특정한 하나의 알(관념)을 대상으로 마음을 힘껏 밀어붙입니다. 마음이 그 관념의 대상에서 떠나면 다시 그 대상에 집중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마음은 힘이 생기고 알아지는 대상이 점차로 줄어들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집중명상은 시끄럽거나 주의가 흩어지는 환경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조용한 곳, 알아지는 대상이 적은 곳을 선호합니다. 집중명상으로 삼독심이 삼독심 없는 고요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승원 정사

그러나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반야)는 사마타 수행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 관념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마음이 금방 동요합니다.

②지혜명상(관觀, 위빠사나)

지혜명상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앞에서 실제로 있는 것, 즉 실재인 법(法)에 주시합니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알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편안하게 알아차립니다. 알의 과정은 너무나 빠르고 복잡해 부처님이 아니고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내게 알아지는 것만 편안하게 알아가십시오.

육문을 통해 알아지는 알들. 형상을 단지 형상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냄새를 단지 냄새로. 몸에서 알아지는 감촉을 몸의 느낌으로, 그것을 알고,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마음에서의 작용도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다 보면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알되던 동요하여 점차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요함을 찰나찰나 생겨나는 알로부터 동요하지 않고 자유롭다하여 찰나삼매라 합니다.

집중명상의 결과로 얻어지는 몰입삼매나 근접삼매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찰나찰나 알은 일어나지만 마음은 알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의 알아지는 실재를 알아차리다 보면 실재하는 법의 보편적 특성인 무상, 고, 무아의 견해로 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명상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가 아닌 무아적 존재라는 견해로 수행하기 때문에 다만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지혜명상의 목적입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198차 이사회 개최

2022학년도 교사 신규 채용 등 의결

학교법인 관음학사 198차 이사회가 이사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이사 8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5일 동해중학교 법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2021학년도 법인회계, 학교회계 1차 추경안을 각각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로 승인했다.

또 2022학년도 수학과 교사 1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의결하였으며, 오는 11월 20일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도우 정사 후임은 오는 9월 7일 열리는 임시 중앙총의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KBS 나눔의집 관련 편향 보도 비판

조계종, 입장문 통해 법적 대응 시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 8월 13일 '2021년 8월 13일 KBS 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정 보도 및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계종은 KBS '나눔의 집 의혹 밝혔지만... 공익제보자들은 줄 소송에 고통' 보도 관련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의 원칙을 상실한 편향 보도"라며,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담은 전형적인 보도로 종단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사회복지법상 설립된 법인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했다."며,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을 후원금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하며 종단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단은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보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며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비롯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마음의 등불

법성사 자성 전수 편

향기 없는 꽃처럼

- (1) 마음을 항상 정직하게 가지고 실천하면 악행이 속히 멀하고 스스로 제어하면 수(壽)를 더하며 범하지 않으면 명예가 높다.
- (2)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다우나 향기가 나지 않는 꽃잎과 같이 훌륭한 말이라도 실행 없으면 행복한 열매를 맺지 못하리.

『법구경, 法句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법성사 자성 전수님은 법선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1년 9월 1일~ 10월 3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밀양 표충사 호국박물관 재개관

‘아미타구품도’ 일반에 처음 공개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호국박물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 15일 상설전 재개관식을 봉행했다.

또 이를 기념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표충사 아미타구품도’를 보존처리해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호국박물관은 1992년에 신축되어 2002년 상설전시관을 개관하여 문을 연 이래, 국보 제75호 청동은입사향완, 보물 제1944호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제29호 사명대사 금란가사 및 장삼 등 1050점의 우리 문화재를 보유하여 전시해왔다. 이번 재개관식은 박물관의 노후화와 전시환경 낙후로 인한 유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거쳐 이루어지게 됐다.

호국박물관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동절기(11~12월)에는 오후 4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

문의 055)352-1150

진각종, ‘월곡오거리광장’ 상생공간으로

10월 중 ‘육자진언 진언비타’ 내부 이전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도진 정사)이 월곡오거리광장 내에 위치한 ‘육자진언 진언비타’를 종단 내부로 이전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진각종은 지난 8월 9일 진각문화전승원 통리원장실에서 성북구청 현병구 안전생활국장, 광정숙 일자리경제과 과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진각종 공개공지 정비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간담회에서 “진각종의 상징과도 같은 진언비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지만, 지역과의 상생을 생각해 내린 결정이다.”고 밝히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각종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 골목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성북구청, 동덕여대와 함께 추후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10월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프간 전쟁을 보는 시각

지혜의눈

불교의 전래와 러일전쟁,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연결
극단적 이슬람 세력과 극단적 기독교 복음주의의 충돌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그 하나가 불교의 전래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러일전쟁과 관련이 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친 근대 이후 서구열강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동시에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식민지를 더 많이 갖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펼쳤다. 영국과 프랑스가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침략하였다면, 러시아는 동쪽의 미개척지인 시베리아 쪽으로 침략하였다. 영토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에서 서쪽 끝인 스칸디나반도에 걸쳐있는 형태로 팽창한 러시아는 동서간의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를 느꼈다.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철도를 부설하였고 바다를 통해 동서 간의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려 노력하였다.

문제는 바다를 통한 교통 통신망인데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한 나라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해외(海外)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발전하였다면,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육군국이었다. 그러나 대량의 물자수송은 선박이 효율적이었기에 러시아는 동서로 늘어진 영토를 연결하기 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펼쳐진 영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펼쳤다. 러시아의 해상교통로는 서쪽의 발트해 연안과 흑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통로,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있었다.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였고, 18세기 후반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과 전쟁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지중해

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1853년부터 1856년까지 3년간 크림전쟁이 일어났고 영국은 오스만투르크를 지원하여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저지하였다.

러시아가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 했기에 영국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러시아가 지중해를 거쳐 인도양으로 진출하거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양으로 진출할 경우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육로와 해로 양쪽에서 러시아의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국은 크림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막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의 활동을 아직 견제하지는 못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을 견제하려는 친러파가 득세하였다.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동항(不凍港)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 한반도 남단에는 천혜의 항구가 있었고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의 항로는 대한해협을 지나가는 노선이었다. 러시아가 조선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의 태평양 진출이 용이할 것을 염려한 영국은 1885년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1897년에는 고종의 아관파천을 계기로 러시아는 저탄소(당시 선박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였기에 적절한 지점에 석탄을 저장하는 시설을 두었다) 설치를 위한 절영도 조차(租借)를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영국은 전 세계에 산재한 식민지 관리 때문에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근대화에 막 들어선 일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동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일본은 영국의 지원 아

래 열강의 중국 침략에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만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랴오둥 반도를 할양받았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으로 다시 청에 반환하였다. 결국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 전쟁비용에 충당하도록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였고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영국과는 2차 영일동맹을, 미국과는 카쓰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받았다.

이렇듯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일전쟁의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언어가 같고 문화적 공통점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는 대외정책에서 보조를 맞추어왔다.

9.11 테러에서 비롯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내심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의도와 맞물려있다. 이제 영국이 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미국이 맡은 꼴인데 아프간에서 친미 정권을 세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미국의 의도는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비록 한국이 최근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선진국 중 유일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방세계와는 다른 시야를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아프간 전쟁은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과 극단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인 미국이 충돌한 전쟁이라는 관점도 염두에 뒤야 한다. 두 종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종교 아닌가?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연명의료 38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

법상 정사

누군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 등을 모색하는 ‘삶의 양’과 관계되는 질문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삶과 죽음의 의미, 영혼, 가치, 삶의 보람, 죽음 방식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삶의 질’과 ‘죽음의 질’에 관계되는 물음이다. 삶의 양적인 차원과 관련 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만 의미

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일 뿐이므로,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람들은 육체 중심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삶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간다. 죽음을 잘 이해하는 일은 삶을

우리는 죽음과 관련해 네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누구나 죽는다. 언제나 죽을 수 있다.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지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은 똑같지 않다. 살기도 바쁜 세상에 왜 죽음까지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있는 듯이 보일 뿐 영혼의 성숙과는 별 관련이 없다.

삶과 죽음의 ‘질’과 관계되는 문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 모두에 통용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만 생각했을 뿐, 인간다운 죽음의 권리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 삶은 죽음에 의해 마감되므로, 웰빙은 웰다잉에 의해 완성된다.

죽,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 통해 어떻게 사느냐를 배우는 것은 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잘 알아야 한다. 왜 죽음을 잘 알아야 할까? 육체 중심이 죽음 이해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다보니 학교와 사회에서는 죽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죽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의미있게 영위하는 일과도 직접 연관된다. 우리도 언젠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아야 하고, 죽음을 잘 이해해야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으므로,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은, 이 삶을 전부로 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한계, 세속의 율타리와 육신의 감옥에 갇혀 버리고 만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살다가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법정 스님은 말했다.

“육신을 80년 끌고 다니면 부품 교체가 아니라 폐차 처분할 때가 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보면 막막하게 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하게 된다. 우리는 평소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담담하게 건너갈 것 같다.”

이들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황망하게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과 함께 살게 되고, 죽음이 찾아온 순간 삶 전부를 마감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잘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죽음준비 지름길은 없다. 일상의 삶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춘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언제든 빈손으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낯은 생각, 낯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법정 스님)



심보이야기 22

법선 정사

제7식의 특징(1)

제7식은 말나식(末那識,manas)으로서 사랑식(思量識)이다. 항상 생각만 하는 식, 의식처럼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만 한다. 그리고 제7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無記)에 속한다. 항상 생각만 하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나’라고 항상 집착한다. 이것을 집아(아집(我執))라 한다.

제7식은 항상사량(恒審思量)하는 식이다. 낮이나 밤이나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한순간도 멈춤 없이 항상 찾고 생각하는 것이 제7식이다. 그리고 항상 ‘나’를 집착한다. 중생

6식의 뿌리인 의근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6식 가운데 의식(意識)이 광범위한 활동을 하므로 평상시의 의식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나 상식을 초월한 정신계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유식학(唯識學)에서 제6식의 뿌리로 제7식 말나식(末那識;manas-vijnana)을 상정함으로써 해결했다.

제7식은 자아의식(自我意識)이다.

그리고 유식학의 입장에서 보면

제7식의 ‘나’라고 하는 자아집착의식(自我執着意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말나식은 집착으로 오염된 자아의식이다. 따라서 중생의 온갖 못된 생각은 모두 말나식이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집착하는 인간은 자기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자아의 존재를 부정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기적 사고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멸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를 최고의 수행 목표로 한다.

의식처럼 활동하지 않고 생각만하는 ‘사랑식’ ‘말나식’을 정화하는 것이 최선의 수행 과정

들이 모두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이 제7식 작용에 의해 아집에 빠져 헤어 나지 못한다. 제7식, 곧 자아의식의 율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말나식은 삼식(三識. 심(心)·의(意)·식(識)으로 3식이라 한다. 심(心)은 아뢰야식을 말하고, 의(意)는 말나식을 말하며, 식(識)은 의식 또는 육식을 일컫는다.)의 하나로서 모든 감각이나 의식을 통괄해 ‘자기’라는 의식을 낳게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내가 있다’, ‘이것이 나다’라는 아상(我相)을 가진, 이기심(egoism)이 있는 아주 깊은 무명의 뿌리이다.

제7식은 제6식보다 심층심리이다.

만약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거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작용이 일시 정지하거나 정신착란이 일어난다면 그때 제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제7식의 작용이 활발하다고 했다. 인간의 자기 존재성을 자아(自我)라 하며, 자아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자아의식이고, 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제7식인 말나식이다. ‘나’라고 하는 강력한 아집의 본원인 것이다. 그래서 제7식 말나식을 자아의식이라 한다.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은 바로 이 제7식의 자의식으로 인한 것이다. ‘내가 있다’,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무명의 뿌리이다. 자기의 존재에 집착하는 인간은 ‘나’라는 사람,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고귀한 존재로서 남보다 더 많이가져야 하고, 더 잘났다, 오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자기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모든 집착과 어리석음은 바로 이

제7식은 이기심이 있는 의식이다.

인간은 자아의식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정보에 의존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양 판단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기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제7식 말나식에 항상 상응해서 더럽고 끈질긴 4가지 버릇인 아치(我痴), 아견(我見), 아만(我慢), 아애(我愛)의 4번뇌가 일어난다고 본다.

이와 같은 4번뇌(四惑, 四惑)와 함께 하므로 말나식을 망식(妄識)이라고도 한다. 즉 말나식은 인간 의식의 뿌리가 돼서 그때그때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모든 허튼 생각을 계속해서 온갖 망상을 만들어내므로 수행이란 결국 말나식을 정화하는 것이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차시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 편 중>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다



정사 성지

마음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이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극히 평온하게 작용하면 평상심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고요하게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극히 평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어찌 그 마음을 고정 불변할 수 있을까요?

『심지관경』에 ‘심법(心法)은 본래 없는 것이어서 진세(塵世)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 어찌 탐진치에 물들며 삼세법(三世法)에 그 누가 마음이라 할 것인가? 과거의 마음은 이미 멀었고, 미래의 마음은 이르지 않았고, 현재의 마음은 머물지 않아서 모든 법(法)의 내성(內性)을 얻을 수 없고, 모든 법(法)의 외상(外相)도 얻을 수 없

떨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의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어떤 존재도 모두 마음이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이리저리 요리합니다. 별의 별 것을 다 만들지요. 예쁜 것이었으면 내 옆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고, 부정할 것이면 보기도 싫다고 하고, 또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좋은 것이면 더욱 오래오래 내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던가요? 모든 것이 다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선종(禪宗)에서는 사람 마음을 소에 비유해서 소를 찾아 소를 잘 길들여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깨달음의 세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사고와 삶을 외면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극히 간단합니다. 평상심을 찾지 못하고 흥분되어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작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속아서 저질러진 결과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실수를 알게 되면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마음작용입니다. 그 마음이 본래 청정무구하지만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진 정보에 의해서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만이고 노엽고 슬퍼지기도 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삼밀수행, 참선, 염불 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정진할 때 삼밀행을 하고 있지요. 몸으로 결인, 입으로 진언 염송 뜻으로 관하지요. 그 관하는 대상인 바로 내가 이미 불성을 갖추고 있고,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가요?”

『반니원경』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마음을 내가 부리면 내가 참나의 주인이고, 그 마음 가는 대로 쫓아가면 잘못된 삶을 하게 됩니다. 결코 마음 가는 대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생각 없이 살고 행동하는 잘못된 삶을 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 바로 참회하고 고치는 것. 하루 행복하려고 하는 새벽 불공부터 밤이나 낮이나 염송(念誦)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내 삶을 바르게 가꾸어나가기 위해서 쉽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할 거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반복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어떤 일상이 아닌 대상을 접하게 되면 변하는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평상심(平常心)입니다.

평상심이 따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조(宗祖)님께서 가까운 내 마음에 극락(極樂)을 찾자고 하셨지요.

부처가 곧 내 마음(即心是佛)이고 내 일상(日常)이 곧 부처의 삶이고 평상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상심(平常心是道)이고 그런 삶이 부처의 삶이라 하겠습니까.

마음의 본질을 잘 아는 것, 진정한 나를 찾는 일 삼밀수행, 참선, 염불 등으로 마음 다스리기 노력

으며, 모든 법의 중간도 얻을 수 없다. 심법이 본래 형상이 없고 머무는 곳이 없어서 일체 여래도 마음을 보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 밖의 사람이 심법을 볼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여래가 보지 못한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이미 찾아서 내가 쓰고 있으면서 따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착각을 한 겁니다. 지금 평상심이 도라는 것, 그걸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에 있나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정진할 때 삼밀행을 하고 있지요. 몸으로 결인, 입으로 진언 염송 뜻으로 관하지요. 그 관하는 대상인 바로 내가 이미 불성을 갖추고 있고,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가요?

「기신론(起信論)」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게로 들어가는 심우도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고삐 풀린 소처럼 달아나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을 잘 알아서 마음 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마음 단속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일입니다. 그 마음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됩니다.

평상심이 무엇인가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 졸리면 한잠 자고 싶은 것, 밤이 되면 쉬고 낮이면 활동하는 것. 이처럼 우리 삶의 일상이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보세요. 가족 간의 애정 어린 충고에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흥분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은커녕 덮어서 넘어갈 구멍이나 찾는 잘못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면, 즉 성도하면 그 순간 온 세상이 달라 보일까요? 깨달은 전신이 금으로 덮이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절할까요? 깨달아도 그 자리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을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칭찬하고 있구나.’하고 들뜨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누가 날 욕하더라도 잘 참아 내는 마음, 그것이 평상심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나고 경우에 어긋난 짓 하면 눈살 찌푸려지는 것이 평상심이요,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로 잡을 줄 알면 제천(諸天)들이 다 사람을 대신하여 기뻐할지니 마땅히 하심(下心)하여 부드럽고 겸손할 것이며 마음 가는 대로 따르지 말 것이라. 마음의 행(行)은 못 하는 일이 없으니 도(道)를 얻는 것도 또한 마음이라 마음이 하늘을 만들고 마음이 사람을 만들고 귀신도 만들고 축생도 지옥도 다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까운 내 마음에 극락(極樂)을 찾자.

물건(物件)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生角)하면 성불(成佛)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만은 자성불(自性佛)이 곧 자기(自己)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生覺)하면, 성불(成佛)의 가능성(可能性)을 가지게 된다.

진리(眞理)가 먼 데 있다고 생각(生覺)한즉, 깨치기가 어렵지만은 만약(萬若) 생활(生活) 중에 있다고 안다면, 곧 능(能)히 체득(體得)하여 깨칠 것이다.

극락(極樂)이 서방(西方) 십만억(十萬億) 국토(國土)의 밖에 있다고 여긴다면, 죽은 후(後)에나 왕생(往生)할 곳이라고 생각(生覺)할 것이다.

모름지기 자기(自己) 마음 가운데 극락(極樂)이 있음을 알지니라. 현세(現世)가 극락(極樂)인즉, 이것이 곧 가없는 고해(苦海)에서 머리를 돌려 저 언덕을 바라보라고 한 비유(比喻)인 것이다.

<종조법설집 185쪽>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찐보리수 108염주

₩ 40,000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제 1장 시절인연

탄생_①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전법륜 이래 한 번도 멈춰 헤어지지 않았으나 시절 인연에 따라 드러나거나 감춰졌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 법의 등잔을 지킨 이들에 의해 고해를 밝히는 빛이 되어왔다. 부처님이 세상을 위해 가르쳐 생활 속에서 불법을 어긋나지 않게 실천하는 밀교의 교법은 이 땅에 전해진 후 오래도록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려 이후 오래도록 길은 끊어지고 가르침은 잊히고 말았다. 세상의 고난을 구하고 생활이 온전히 불법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삶의 순간에서 구현되기를 바란 한 사람의 원력에 의해 길은 다시 이어지고 혼란과 고통의 세상에 밀교의 법이 다시 드러나게 됐으니, 원성 대성사의 출현으로 법의 등불은 세상을 다시 비추게 됐다.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일직 손 씨 26 세손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손기현, 모친은 이근호 님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지어 호적에 올린 이름은 민호(珉鎬), 빛나는 옥처럼 단단하게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이름게 쓰이는 사람이 되라는 바람을 담았다. 성년이 되어 관례를 치른 후 얻은 이름인 자는 대련(大鍊)으로 훗날의 쓰임을 위해 시대와 역사로부터 큰 단련을 받을 운명을 암시한다. 총지종을 일으킨 후에는 자를 정우(禎佑, 또는 禎佑)로 삼았으니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붉은 해처럼 도움을 주리라는 염원을 읽을 수 있다. 대성사의 법호는 원정(苑淨)이시니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호이다.

대성사가 태어난 곳은 일직 손 씨 집안의 근거지는 경상북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 일명 죽서(竹西) 마을. 다죽리란 차밭이 있는 다원 마을과 대나무가 많은 죽남 마을에서 한 자씩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 차나무와 대가 많은 곳이다. 차는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일대를 차나무로 덮고 대는 뿌리 하나가 온 산을 울창한 대숲으로 만든다. 그런 인과대로 다죽리 일대는 밀양에서도 풍요롭고 인물 많기로 유명하다.

밀양 시내에서 울산 방면으로 가다가 읍골과 표충사로 갈라지는 곳에 산외면이 있다. 재약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풍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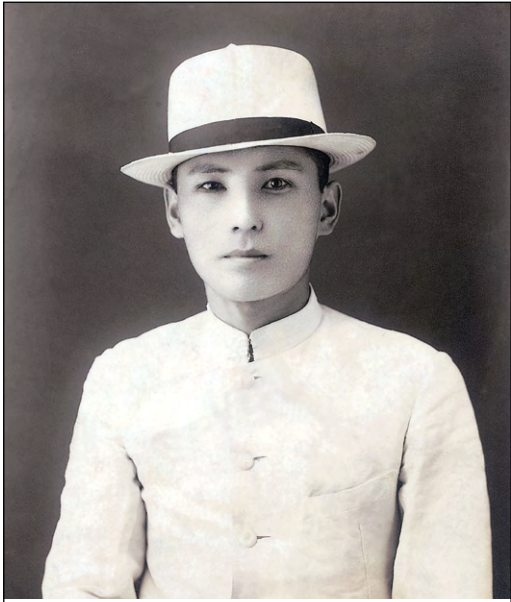
송림은 풍치가 뛰어나 지금도 밀양의 자랑으로 꼽히는 곳이다. 대성사가 어린 시절 그 송림 사이를 뛰며 흐르는 물과 구름과 바람으로 세상과 만났을 것이다. 유년기의 경험과 기억은 평생 사라지지 않아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겨 놓는다. 후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죽서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말없이 세상사를 관조하고 침묵 속에서 꿰뚫은 성품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죽리는 예나 지금이나 초연하고 평안한 곳이다.

사람의 삶은 흔히 인연의 소생으로 이야기한다.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즈의 표현에 따르면 유전자에 새겨진 수많은 정보들이 성격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직 손씨는 흔히 안동(安東) 손씨로 칭한다. 고려 시대 복주(福州) 땅인 안동 일직면에서 중시조가 가문의 번성을 이루었다. 손씨들의 성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대성사의 성품에 배인 혈통의 인과를 짐작케 한다.

일직 손씨의 4세 조상인 복천 부원군 손홍량(福川 府院君 孫洪亮)은 고려 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후 승승장구하



1938년 대성사 모습과 친필

수습하고 국운을 일으킬 정책을 건의하였다. 공민왕은 크게 감탄하여 그 충직하고 곧은 절개를 치하하며 감탄했다.

“그대는 한결같이 곧은 사람이다.

(子誠一直之人)”

본관인 일직과 하나같이 곧은 성품이 일치함을 드러내 탄복한 것이다.

1907년 경남 밀양 일직 손 씨 26세 손으로 태어나 대성사 성품, 선대의 성정이 혈통의 인과로 이어져

물길에 마을 바깥을 흐르고 멀리 재약산 천황봉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마을 뒤편으로 육화산이 있어 완만한 능선이 다죽리 일대로 흘러 떨어지는데, 양명한 고장으로 알려진 밀양에서도 다원 일대는 풍수지리 면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전해진다. 다죽리는 예부터 살기에 편안하고 풍요로우며 큰 인물이 나는 땅으로 알려져 있다.

수량이 풍부한 천을 끼고 펼쳐진 비옥한 들판 덕에 쌀과 밭작물이 풍부하며, 인근 재약산과 종남산, 가지산과 영취산, 그리고 북암산과 백운산 등지에서 나는 산채가 사철 생산되는 곳이다. 다원 동산의 차밭에서 딴 차는 문종의 차례를 올릴 때나 인근 통도사와 표충사에서 헌다 공양으로 긴요하게 쓰이고 차와 시를 곁들인 선비들의 시회에도 값지게 사용됐다. 대나무는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요긴한 물건이라 다죽리는 밀양의 알곡 같은 곳이다. 한마디로 풍광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며 인재를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다.

다죽리에는 천변을 따라 심어 둔 소나무밭이 절경을 이룬다. 마을을 감싸고 펼쳐진

은 인연을 짓고 허물며 살아간다. 출생의 인연이란 그의 가문이나 부모를 인으로 삼아 타고나며, 당대의 사회와 시대상과 연을 맺게 된다. 대성사가 일직(一直) 손씨로 태어난 것은 운명적인 인연의 출발인 셈이다. 요

였다.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공민왕 때 마침 홍건적이 침입하여 왕은 안동으로 피난을 왔다. 향리에 머물던 손홍량은 피난길의 왕을 마중하여 관직을 벗어 평민이 되었음에도 난리를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원정 대성사 생가터. 1990년 12월 2일 촬영본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_ 원정 대성사 영결식 (1980년 9월 12일)



1980년 9월 8일 밤 11시 30분, 총지종의 창종주이자 한국 밀교의 중흥주이신 종조(詞祖) 원정(苑淨) 대성사께서 세운 74세의 일기로 사바세계를 뒤로 하고 열반의 피안으로 떠나셨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본산 정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승단과 교도 그리고 내빈들이 운집한 가운데 영결식을 엄수하였다.

장의행렬은 끝을 찾아볼 수 없었고 종조님의 육신은 영원한 반열반에 드시어 다비로써 사리(舍利)를 남기시었다.

수습하여 본산 총지사 서원당 청호실(淸鶴)에 봉안하였다.

<종단 교사(敎史)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기록 중>

창종 50년, 선대스승의 원력과 희생, 교도의 신심과 애종심이 바탕

BBS불교방송 ‘뉴스와 사람들’은 사회 명사들과 현안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BBS라디오 정통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다. 창종 50년을 맞아 지난 8월 1일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초대되어 불교총지종의 가르침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김봉래 BBS 전법후원 국장과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당시의 선대 스승님들의 원력과 희생, 교도들의 신심과 애종심이 불교총지종 창종 50년 역사의 가장 큰 바탕이 되어 왔다고 전했다. 대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통리원장 인선 정사

김봉래 국장 : 불교총지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밀교 종단 가운데 하나이죠. 총지종을 설명할 때 정통밀교, 생활불교 종단,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불교총지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사 : 밀교는 의궤법(儀軌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진언과 결인, 거기에 맞는 인계(印契) 등이 모두 정확하게 갖추어져야

나가는 시기로 보고요. 그 다음 20년 가까이 이를 발전기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사원이 건립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춰지고 많은 교도들이 새롭게 제도가 되었습니 다. 그 후 현재까지는 어느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정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창종 50년을 맞아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봉래 국장 : 사실 불교총지종은 저희 BBS 불교방송과는 아주 특수한 관계이죠, 저희 불교방송 개국 때부터 이사 종단으로서 참여를 하고, 미디어 포교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찍부터 종립 동해중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인선 정사 :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세대는 젊은 세대니까 인재를 양성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교화 방편이 달라야한다고 일찍이 설교하셨습니다.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미디어의 경쟁력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불교방송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포교를 통해 전법을 하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봉래 국장 :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 종단이 적극 나아가야 하는데 좀 속도가 늦었다거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인선 정사 :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단 승직자가 좀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승직자 수급이 사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큰 내부적으로 어려움입니다.

김봉래 국장 : 네. 그게 꼭 우리 불교총지종만의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겪는 어려움이죠.

인선 정사 : 또 새로운 교도가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본다면 복지 자원(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을 가진 종단으로서 사회에 마음이나 또 물질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로하고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래 국장 : 불교의 수행과 특히 포교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데요. 불교가 무엇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

시대에 맞는 포교와 전법, 종단의 역할이자 승직자의 본분 젊은 세대의 감성과 아픔 공감하는 종교 지도자 필요한 때

정통밀교로서 인정됩니다. 생활불교는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겨 불교총지종이 정통밀교 또 생활불교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봉래 국장 : 밀교라고 하면 보통 현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밀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생활불교는 조금 출세간적인 불교, 예전 말로 산중불교와 대적점에 있는 그런 용어로 생각이 드는데요, 불교총지종은 종조님이신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종조님의 창종 정신이랄까요.

인선 정사 :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호국불교로서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 불교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편으로 종단을 창종하셨습니다.

김봉래 국장 : 1972년에 창종이 되었습니 다. 종단 전체의 50년의 역사를 생각할 때 대략 삼 분을 하면 초창기, 발전기, 그 다음에 도약기랄까 여러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고 또 각 시기마다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서는 종단의 역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요.

인선 정사 : 총기 1년부터 10년까지는 초창기이니가 스승님들과 교도들 간의 내부적 신뢰와 종단의 기본적인 교무를 갖추어

는 것이 종단의 역할이고 승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래 국장 : 제가 경주 출장 당시 택시 기사님께 석굴암을 가자 했더니, 당신이 총지종의 종립학교를 나왔다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종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참 역사가 깊은데, 최근을 정체기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자랑 좀 해주시죠. 총지종의 최근 현황들을.

인선 정사 : 제가 처음 총무부장 소임을 맡으면서부터 종단이 나아가야 할 부분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재정적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필요하 다 생각을 했고, 둘째는 승직자든 교도든 어떤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처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승직자의 자질향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력을 세워 노력을 해왔고, 괴산에 기도도량을 건립하고, 또 승직후보자교육 과정을 통해서 집중 수련이나 교육에 관한 기본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수익사업 쪽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김봉래 국장 : 원장님 올해가 창종 50년이면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준비되지 않겠습니 까.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인선 정사 : 첫째는 원정 대성사님 진영 조성 불사였고, 올해 1월 29일 종조님 탄생일에 맞춰 이미 봉안을 했습니다. 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과 원정 대성사님 일대기, 종단 50년사 책자 발간 등이 준비 중이며, 연내

히 젊은이들일수록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일 수 있고요, 문화가 조금 익숙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불법을 잘 홍보하는 게 관건인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인선 정사 : 극복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삶 중에 수행자든 일반인이든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저 자신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야 할 때,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겉의 현상만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나 는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불행 쪽으로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현상도 지혜가 없으면 선업이 악업이 될 수 있고 나 는 선업이라 여겼는데 악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해 수행, 명상이나 자기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김봉래 국장 : 과학 같은 데서 불교의 가르침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앞으로 대세의 어떤 종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선 정사 : 불교가 해야 될 일은 종교인이나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나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아는 지식 위주가 아니라 실천하는 불교가



진행 : 김봉래 BBS 전법후원국장 / 대담: 통리원장 인선 정사

“

진언과 결인,
이에 맞는 인계(印契) 등
의궤법이 엄격하게
갖추어져야 정통밀교

”

되어야 말 그대로 앞으로 영구히 마지막까지 존재 가치로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래 국장 :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교가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숙제들은 남아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선 정사 :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즘 젊은 분들은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자 입장에서서는 젊은이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이랄까,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성불하겠다는, 부처가 되겠다는, 이런 분은 없거든요. 사실은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불교 지도자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공감이었을 때 청년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김봉래 국장 : 21세기 대한민국에 가장 큰 문제를 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갈등과 분열입니다.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해법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사 :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 항상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므로써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했을 때 그런 갈등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가장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정신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공부만 되어 있다면 그런 갈등은 없겠죠.

김봉래 국장 : 우리나라 정치계도 그렇고,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회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전법에 매진하면서 또 종단을 이끄실 텐데, 개인적으로 수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인선 정사 : 월초 불공 기간 일주일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제가 통리원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월초 기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행에 늘 저 자신이 목마름이 있고 제 자신한테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수행을 제대로, 더 열심히 해야 올바른 수행자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데, 빨리 소임을 놓고 제가 정말 오로지 정진하는데 수행하는데 전력을 하고 싶습니다.



BBS 불교방송 김봉래 국장

김봉래 국장 : 네. 앞으로 원장님의 향후 계획이랄까, 원력이랄까 그것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사 : 저는 일단 종단의 수장으로서는 내년 초가 되면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때까지 제 소임에 최선을 다 할 거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또 본래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김봉래 국장 : 저는 원장님 말씀 가운데 지난 50년간 다양한 불사를 통해서 종단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제 2의 도약기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총지종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종단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종교의 신비주의 현상

신비주의(mysticism)은 일반적으로 감추어진 진리나 지혜를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 신(神) 또는 신성한 존재(초월적 영역)와 합일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오토(Rudolf Otto)는 ‘신비주의는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반(地盤)인 기성종교 위에 걸려 있는 아치로서, 아무리 높아도 그 지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 신비주의는 기성종교의 역사적 현장에서 나타난다.

기성종교가 복잡한 의례나 계율 등을 중시한 나머지 형식화되거나 또는 합리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으로 되어 변해해진 경우에, 기성종교 안에서 그 고정화를 깨고 살아 있는 종교적 생명의 원천으로 직접 돌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성립된다.

또 한편으로 신비주의는 역사·문화적 맥락을 뛰어넘어 인간이 갖는 초역사적 근원체현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전자가 종교에 방점이 있다면 후자는 신비에 방점이 있다.

불이합일(不二合一)의 행

‘불교에서’라고 접근하면 이미 불교라는 종교적 맥락에서 신비주의가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신비주의는 매개변수가 된다. 한편 종교 체험이 초월적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후자는 맥락을 벗어난 지점, 즉 독립변수로 그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와 신비주의는 그 불가분의 관계적 성격 때문에 병존(並存)한다고 할 수 있다.

밀교의 특색으로 주술적, 의례적, 신화적, 외교적(外敎的) 성격 등을 드는데, 신비주의 또한 밀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신비주의라는 말을 절대자와 자기의 합일, 즉 신비적 합일(unio mystica)의 의미로 한정한다면, 밀교에서는 절대자로서의 본존과 현존재로서의 행자 사이에 행해지는 상즉상입(相卽相入)에 따라 행자의 내면에서 본존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불이합일(不二合一)의 행이다. 밀교에서는 그것을 입아아입관(入我我入觀)이라고 부른다.

물론 합일은 행자의 초월적 체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밀교는 현실즉실상(現實卽實相)의 세계를 펼치므로, 합일의 인(因)이 곧 불행(佛行)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현실은 곧 신비한 합일의 세계가 될 수 있으며, 현실을 떠난 신비체험은 밀교의 목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입아아입관(入我我入觀)

밀교의 주술적, 의례적인 측면은 인도 고대 종교의 그것들을 계승하면서 기원 1세기경부터 오랜 세월을 걸쳐 점차 불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정비되어, 7세기 이후 인도 밀교의 전성기에 경전과 의례에서 크게 이루어진 것이다.

대승불교가 인도 고대의 주술·의식·신화·신격 등을 섭취하여, 불교

독자적인 체계에 편입시켜 밀교 경전으로 재현해 나가는데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신비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입아아입관(入我我入觀)이 역사의 표면으로 드러난 것 또한 그만큼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비주의는 확실히 밀교의 특징처럼 보이지만, 본래의 의미에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입아아입, 신구의(身口意)의 삼밀(三密)의 상즉(相卽)은, 인도의 초기 밀교의 시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8세기 이후에야 문헌상에 드러난다.

종삼존관(種三尊觀)
자인형관(字印形觀)

입아아입의 관법에서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종자(種子), 삼매야형(三昧耶形), 존형(尊形)의 세 종류가 있다. 즉 불, 보살, 명왕 등 제존의 성격(자내증)을 산스크리트 문자의 한 자 또는 두 자로 심벌라이즈(symbolize)한 종자의 관법, 제존의 성격을 범구 등으로 심벌라이즈한 삼매야형의 관법, 제존의 모습 그 자체의 관법의 세 가지이다.

이를 종삼존관(種三尊觀) 혹은 자인형관(字印形觀)이라고 한다. 밀교에서는 이들 3종을 순차적으로 관법하여 본존과 행자의 불이합일(不二合一)에 이르는 방법과 종삼존(種三尊) 중 하나를 단독으

로 관법함으로써 입아아입에 이르는 방법이 있고, 또한 본존과 행자의 상즉상입(相卽相入) 후 종삼존의 관으로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

관자재보살달부다리수심다라니경

이런 종삼존관(種三尊觀)이 문헌상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8세기 초 당대의 지통(智通) 역의 관자재보살달부다리수심다라니경(觀自在菩薩怛嚩多唎隨心陀羅尼經)이다.

한역 연대와 인도 기원의 일반적

인 예로 볼 때, 이는 7세기경의 인도 밀교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서는 행자가 도량에서 연화의 근본인(根本印)을 맺고 진언을 외운다. 그 진언의 음성이 본존의 입에서 유출되어 행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앞에 대련화(大蓮華)를 보고 이 꽃 위에 파리(觀龍, tr)자를 관하고 그 글자를 바꿔서 청련화(靑蓮華)가 된다. 또 그것을 다시 따라(tara) 보살로 바꾸게 한다.

이처럼 종삼존을 차례로 관법하면서,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고, 미세하게 행자가 자신의 호흡을 들을 정도로 30만 번의 염송을 계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원(願)은 뜻대로 성취된다고 한다.

여기에 설파되는 관법의 형태는 종삼존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이 지통(智通) 역의 『관자재보살달부다리수심다라니경』보다 약간 늦게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는 밀교경전, 이틀테면 『대일경』 『상선정품(上禪定品)』 『진실섭경』 등에서 입아아입관은 다양한 변화형을 보이고 있다.

판뜨라의 사분법(四分法)

밀교의 경전, 의례 분류법으로는 부편(Butön)이 티베트 대장경의 구분에 채택한 판뜨라의 사분법

(四分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분법에 따라 각각에 있어서의 입아아입관의 특색이 드러난다.

다만 소작(所作)판뜨라(kriyātantra, 크리아 판뜨라)는 외면적인 사작법(事作法)을 주로 설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유가관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행(行)판뜨라(caryātantra, 짜리야 판뜨라)에 가까운 약간의 소작판뜨라에는 유가관법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티베트역에만 남아 있는 『상선정품(上禪定品)』, 그 근원이 되는 것은 기록되어 있으나 판뜨라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금강정계(金剛頂髻)판뜨라』 혹은 마찬가지로 현존하지 않는 『금강수미정(金剛須彌頂)판뜨라』, 그 일부분에

서 붓다구히야(Buddhaguhya)의 주석만 티베트역으로 남아 있는 『금강최파(金剛摧破)판뜨라』 등이 그것이다.

현존하지 않는 판뜨라의 내용은 『상선정품』이나 『금강최파다라니注』를 통해 그 편린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 소작판뜨라에 설파되는 관법은 행판뜨라의 대표적인 경전인 『대일경』에 설파되며 적지 않은 부분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대일경』 그 자체는 관법상으로 정리된 경전이 아니다. 각 품마다 성격이 다른 행법을 가진 것이 많고 심지어 동일품일지라도 한역과 티베트역에서는 소작(所作)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성취법이나 공양법으로

중기 이후의 밀교 경전에서는 총체적으로 경전 자체가 그대로 수법의 궤가 되기는 어렵고 한역이든 티베트역이든 기본 경전과는 별개로 부속된 의례를 여러 개 갖는 것이 많다. 이들 부속 의례는 때로 각각 유파적인 독자성에 입각하여, 성취법이나 공양법이라는 이름으로 경전에 산설(散說)된 수법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의례를 구성하고 있다.

『대일경』의 경우도 한역, 티베트역 모두 적지 않은 부속 의례를 가진다. 이러한 밀교경전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 이들 부속 의례는 『대일경』의 행법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귀중한 자료이지만, 개성적이고 통일성이 부족하여 어느 하나에 의해 『대일경』 자체의 수법체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음호에 계속〉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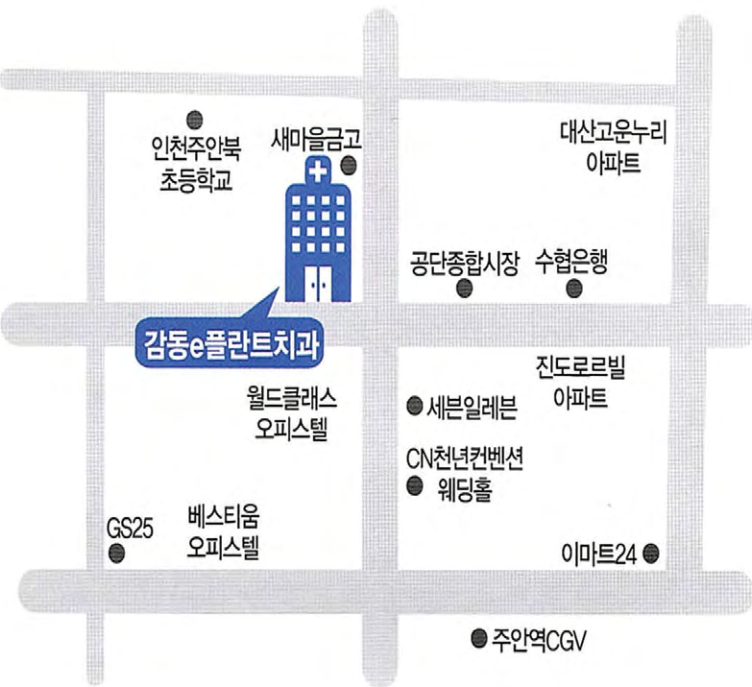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위대한 쯡카빠 룽상 닥빠 (上)

티베트 불교를 생각하면 누구나 달라이라마를 먼저 떠올린다. 또한 티베트 불교는 나란다마하위하라를 계승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나란다대학은 대학 대신 마하위하라, 즉 대정사(大精舍)라는 말로 불리곤 한다. 학제와 사상, 철학, 도서관의 체계는 대학이란 이름을 붙이기에 부족하지 않지만, 삼계를 주재하는 불조의 전승과 밀교의 경지는 학문 이상의 것으로서 대학이란 말로 감당하기 어렵다.

마하위하라는 석가모니 붓다 시대 이후 삼보와 삼장, 전승과 깨달음이 온전했던 교단의 역사를 가장 잘 보존한 말이다. 티베트 불교는 구역시대 닝마빠 이후 신역시대 까규빠, 사까빠, 까담빠, 조낭빠가 생기고, 이후 까담빠로부터 신가담빠

가 나와 이것이 겔룩빠가 되었다. 겔룩빠의 조종 쯡카빠 룽상닥빠(1357-1419)는 1357년 동북 티벳 암도의 쯡카 지방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심사아죄, 아버지는 루분게라고 하였다. 탄생기와 더불어 여러 이적이 전해지는데, 그중 한 가지는 쯡카빠 탄생 시 땃줄에서 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져 이로부터 백단향목의 싹이 자란 것이다.

이 나무는 문수보살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훗날 쯡카빠를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여기게 된 인연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 자리에 불탑을 세웠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점차 건물이 들어서 1583년 제3대 달라이라마 소남가초는 이곳에 꿈불사원을 조성하였다. 쯡카빠는 3살 때 제4대 가르마빠

윳빠돌제(1340-1383)로부터 오계를 받고 이름을 공가닝뽀라고 하였다. 8세에 까담빠의 스승 최제된둠 린첸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룽상닥빠라 하였는데, 이 스승은 위대한 밀교승으로 쯡카빠의 어린 시절부터 관여하여 모든 공부의 기초를 닦았다.

이미 어린 시절 많은 밀교관정을 받았고, 7살 때 아따사와 금강수의 환영을 경험하고 많은 스승들과 대화하는 등 남다른 근기를 보여주었다. 16세때 고향을 떠나 우창지방에 유학하였다. 여기서 50인의 불교학자와 공부하였고, 이때 중관, 유식, 인명 등 불교논서의 중요한 과목들을 대부분 수학하고 관련 논서들을 섭렵하였다. 중요한 수학의 여정 가운데 현

교의 경우 사까빠다파 공가첼첸(1182-1251)과 부뽀린첸둠(1290-1364)의 영향은 불교철학과 논리학을 강조하는 겔룩빠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까빠의 렌다와 린누로되(1349-1412)와 까담빠의 상뽀의 학풍이 큰 영향을 주었다.

렌다와 린누로되는 중관학파의 귀류논쟁 철학으로 유명하였다. 감명을 받은 쯡카빠는 스승에게 간곡한 예찬의 계송을 올렸는데 스승은 오히려 쯡카빠가 계송을 받을 자격이 있다하여 되돌려 주었다. 밀교의 경우 어릴 적 공부했던 된둠린첸이 중요하며 비밀집회 판뜨라에 대해서는 부뽀린첸둠의 제자인 쿵뽀레 빠친누 소남, 차끄라상와라판뜨라에 대해서는 사까파의 라마인 소남 겔첸뽈상뽀(1312-1375)로부터 관정을 받았다. 쯡카빠는 무상유가판뜨라뿐만 아니라 4부판뜨라 전체에 대해 고루 수학을 했다.

닝마빠의 족첸은 둑첸남카겔첸(1326-1401)으로부터 수학했다. 쯡

카빠는 20대 초반 불교철학에 대한 탁월한 견해에 도달하여 반야학을 주제로 「금만선설(金鬘善說, legs bshad gser phreng)」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평생 동일한 주제로 저술을 계속해 18부의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

쯡카빠의 수학과정은 현교와 밀교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쯡카빠와 문수보살의 특별한 관계가 조성된다. 쯡카빠는 초기 중관학자인 빠오돌제에 의지해 공부하였는데 빠오돌제는 문수보살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금만선설」을 저술할 때도 빠오돌제를 통해 문수보살에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쯡카빠는 문수보살의 환영을 다시 경험한 다음 문수보살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문수보살로부터 와즈라바이라와 같은 밀교본존의 관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쯡카빠는 무착과 용수보살을 진견하고 다른 밀교본존의 관정도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비판

도 없지 않았다.

쯡카빠는 약간의 가르침을 퍼기도 했지만 깊은 단계의 수행을 위해 1392년 자뽈수도원에서 8명의 제자와 함께 수행에 들어갔고 7년 후 윳카최룽으로 다시 옮겼다. 밀교 수행으로서 전행도 소홀치 않아 함께 3백5십만회의 오체투지를 하였다. 쯡카빠는 징지로 여행하여 여기서 전통대로 거대한 미륵불상을 복원하였다. 1398년 쯡카빠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귀류논증파의 조사들이 모인 환영을 보고 중관철학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얻었음을 확신하였다.

이후 쯡카빠는 「십이지지연기에찬」이라는 계송을 지었다. 더불어 쯡카빠는 저술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오도 직후 남긴 12지연기에 대한 찬탄은 그가 섭렵한 교학과 밀교수행이 석가모니붓다의 근본가르침인 연기설에 모아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후손에게 전하고 있다.

〈다음 편에 계속〉

아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늘 자식의 앞날을 항상 걱정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후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에게만은 앞으로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가 남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늘 아쉽게 생각해 와서 이런 실수와 후회를 아들에게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습관처럼 말해 왔습니다.

“아들아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아버지와 같은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이런 걱정 of 말들이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특히, 이런 말로 인해 아들은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것도 겁을 내며 움츠러드는 소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자기 삶의 성공은 물론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한 사업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에게 여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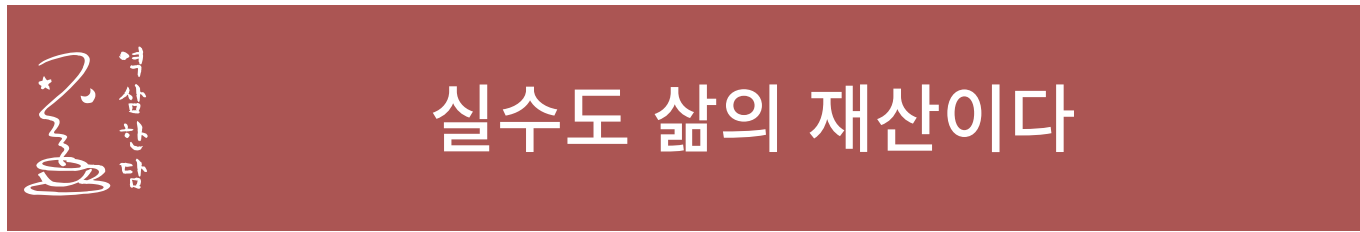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실수 없이 살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제가 생각해 봐도 잘못된 선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실수로 발생한 많은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의 제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깨달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를 달리는 기차가 어느 운송 수단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많은 짐과 사람들을 한꺼번에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차는 어떻게습니까? 기차는 철도가 없는 길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철도를 달리는 기차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빠르고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누군



가 짊어준 철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살이도 이 철도와 같아서 늘 이렇게 탄탄하고 곧은 대로로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가야 하기도 하고, 물론 거친 산길도 올라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고난과 실패 없이 빠르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거칠고 험한 길을 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여 좌절했던 그 아픔이 바로 거친 길을 현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경험이자 재산이 됩니다.

사소한 습관이나 작은 실수도, 직설적으로 내뱉고 이내 후회하는 금

한 성격도, 막무가내의 고집과 시퍼런 질투도, 때로는 타오르는 이글거리는 증오의 불길도, 스스로 금을 그어 가두어 둔 시멘트처럼 굳어진 자기 아집도 자기 스스로 허물고 양보할 때 이런 실수의 작은 알맹이 하나 하나가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에 상납하고 용서에 귀의하며 파사로운 햇살을 반기듯이 늘 소통하고 보듬어 준다면 말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재앙도 어찌면 우리 인간이 더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연찬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우고 좌절과 고난이 닥쳤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

는 힘을 미리 키우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미리 준비는 물론 자연환경의 엄청난 재앙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유비무환 정신을 가지라고 일깨워 주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잠시 동안의 시련을 통해 앞의 한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실수도 재산의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시인, (사)바보클럽 운영위원장,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7월 21일 ~ 8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신정화일동	7/21	100,000	밀인사	김광혁	8/8	10,000
	법상	8/20	20,000		김재영	8/8	10,000
관성사	인선	8/20	20,000		김호진	8/8	10,000
기로스승	해정	7/21	10,000	밀행사	이재은	7/21	10,000
	공덕성	8/20	20,000		행원심	7/21	10,000
	상지화	8/20	10,000	법천사	반야심	8/2	10,000
	수증원	8/20	10,000	법황사	박미경	7/26	10,000
	밀공정	8/20	10,000	벽룡사	묘원화	8/20	10,000
	총지화	8/20	10,000		승원	8/20	10,000
	법수원	8/20	10,000	벗고을어린이집	이민선	8/2	50,000
	선도원	8/20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7/26
	법지원	8/20	10,000	황성녀		7/28	10,000
	일성혜	8/20	10,000	남영애		8/2	30,000
	사홍화	8/20	10,000	이진승		8/2	10,000
	안주화	8/20	10,000	이성미		8/3	50,000
	진일심	8/20	10,000	이태남		8/6	50,000
	사각화	8/20	10,000	최영미		8/10	50,000
	최상관	8/20	10,000	강명순		8/10	10,000
	연동원	8/20	10,000	김갑선		8/19	10,000
단향사	지홍	8/10	10,000	서울경인교구	방생기금	8/9	2,100,000
덕화사	법상인	8/17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7/26
동해사	김진화	8/2	10,000	김용기		7/27	30,000
	법선	8/20	10,000	세곡키움센터	선혜종	7/24	10,000
만보사	김강미자	7/21	10,000		수인사	정순득	7/26
밀인사	법수연	7/25	10,000	실보사		해원정	7/21
	록경	7/25	10,000				
	정정희	7/28	5,000				

실보사	서령	7/21	10,000	실지사	진금선	7/27	50,000
	무명씨	8/4	20,000		정동숙	7/27	50,000
	무명씨	8/4	20,000		반야화	8/8	30,000
	이순옥	8/10	10,000	의원어린이집	연명구	7/24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양지어린이집운천사	박성호	8/10	10,000		하재희	7/26	50,000
	박현정	8/18	20,000		최자영	7/30	10,000
	안병지	7/30	10,000		임지혜	7/30	10,000
	연화법	7/30	10,000	자석사	이현직	7/30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양지어린이집운천사	유승우	8/7	10,000		구미자	8/2	10,000
	이도현	8/7	10,000		도우	8/9	10,000
	이서현	8/7	10,000		지현	8/9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양지어린이집운천사	손석현	8/17	10,000	점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8/10	50,000
	덕광	8/20	10,000				
	보현	8/20	10,000				
	진금선	7/27	50,000				

지인사	승효제	8/17	10,000	총지사	최해선	7/26	10,000
	이지희	7/26	50,000		백귀임	8/10	10,000
	초록어린이집	강혜란	7/27		김정환	8/10	10,000
	강혜란	7/27	10,000	회음사	원당	8/10	10,000
총지사	최해선	7/26	10,000		모심해	8/10	10,000
	백귀임	8/10	10,000		신성희	8/13	10,000
	김정환	8/10	10,000		신명준	8/13	10,000
	원당	8/10	10,000		신현태	8/13	10,000
	모심해	8/10	10,000		박필남	8/14	10,000
	신성희	8/13	10,000		홍수민	8/17	10,000
	신명준	8/13	10,000		최영아	8/17	10,000
	신현태	8/13	10,000	통리원	박근진	8/3	10,000
	박필남	8/14	10,000		최유정	8/6	50,000
	홍수민	8/17	10,000	포레스타7어린이집	염경선	7/30	10,000
총지사	최영아	8/17	10,000		무명씨	8/2	10,000
	박근진	8/3	10,000		강점미	8/5	10,000
	최유정	8/6	50,000		무명씨	8/8	10,000
	염경선	7/30	10,000		박옥자	8/8	10,000
	무명씨	8/2	10,000		무명씨	8/8	10,000
	강점미	8/5	10,000		강승민	8/10	5,000
	무명씨	8/8	10,000		우인	8/17	10,000
	박옥자	8/8	10,000		보명심	8/17	10,000
	무명씨	8/8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8/10	50,000
	강승민	8/10	5,000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5>

스트레스, 괴로움은 나의 지혜

괴로움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괴로움은 스트레스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들과 갈등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경전으로 보건대 여래가 괴로움을 느낀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도 병고에 시달

하여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신 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불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이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라 하여 너무나 방대하니 불교 안에도 참으로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만 하더라도 「아함경(팔리어 니까야)」과 같은 초기경전에서

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비우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남을 돕는 보살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남을 돕는 수행이 대승 불교의 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禪)의 지혜가 있습니다. 선은 괴로움이 그대로 지혜라고 봅니다. 선도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입장이니 나니, 선-악, 중생-부처 등 대립하는 양극단은 모두 망상이고, 본래는 다 완전하다고 봅니다. 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스트레

스트레스 느낄 때, 스트레스를 알아차려야 나를 비우고 남을 돕는 수행이 불자의 지혜

린 기록은 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나거나 말년에 상한 음식을 드시고 복통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병이 나도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병은 인연에 의해 오고 가는 것이니 집착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또 어느 때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 갔을 때, 브라만이 부처님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태연하게 평상심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부처님께서 전생의 수행자 시절에 극악 무도한 가리왕에게 사지를 절단하는 악행을 당하고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으니 과연 부처님이시죠. 그렇다면 어쩌서 부처님은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인간은 근본 문제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

하는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 괴로움을 없앤다와 괴로움을 없애는 길, 이 네 가지 진리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는 내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무아의 지혜로 알아차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련을 안내합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스트레스를 알아차려 “이것도 무상, 무아다” 이렇게 보고 집착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가르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다르게 봅니다. 즉 일체 만물이 연기, 무아, 공이니 나라고 할 독립된 실체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아, 공인데 스트레스 괴로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본래 무아인데,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중생으로 살고 있으니 나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고 보아 생사윤회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나도 괴로움도 있다는 착

스 괴로움도 무아로 보는 정견(正見)을 세우면 지혜로 바뀌어 일체를 밝게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가능하겠느냐? 말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불교를 믿고 이렇게 스트레스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스트레스도 괴로움도 나도 본래 없다!” 하면서 집착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 괴로움도 가벼워지고 짜증과 화가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느끼실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계속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괴로움이 오히려 나를 대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저자 사사키 시즈카 | 역자 법장
판형 140×201 | 240쪽
출간일 2021년 6월 22일
정가 16,000원
출판사 모과나무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고통’은 바로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고 몇 번이고 되살아난다는 괴로움이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을 불교적 표현으로 업이라 한다. 그렇게 벌어진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과보다.

저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한 번 일어난 업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고 되살아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본인이 실제 행동한 그대로가 아니라 제3자로 인해 편집된 형태로 세상에 퍼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 속의 불합리한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이런 상황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내미는 자비의 손길이다.

저자는 인터넷이 지닌 어두운 부분을 주목하며 거기에 잠재된 흉악성의 본질을 불교사상에 대비해 설명하고 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업의 무서움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21세기 인터넷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되리라 제언하는 것이 이 책의 최대 목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터넷 시대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귀중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실 사례들과 경전을 근거로 한 수행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처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카르마 잊혀질 권리가 사라진 세상

부처님 가르침은 고통 없애는 귀중한 지침
인터넷 시대 수행으로 극복하는 방법 제시

저자 사사키 시즈카는 하나조노 대학 불교학과 교수로서 세계적인 불교 교단사 및 계율 연구자이다. 저서로 ‘출가란 무엇인가?’, ‘대승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인도불교의 변천’, ‘과학의 불교-아비달마불교의 과학적 세계관’ 등이 있다.

역자 법장 스님은 2006년 일명 대중사를 은사로 출가해 2011년 비구계를 수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에서 수학 후, 일본 하나조노대학원에서 계율학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객원교수, 조계종 교육아사리, 일본 국제선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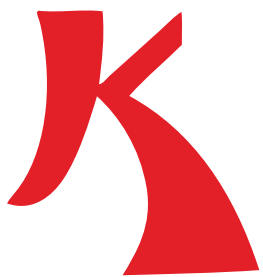


불교서적 월간베스트 (8/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선재동자	준철묘원	영출판사
2	요가디파카	현천 스님	선요가
3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일묵 스님	불광
4	눈먼 보리와 도둑 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5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6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7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스님	위로
8	프리스틴 마인드	울겐 초왕 린포체	운주사
9	원빈스님 금강경에 물었다	원빈 스님	이층버스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상태	천시아	젠북

밀인사 교도



강송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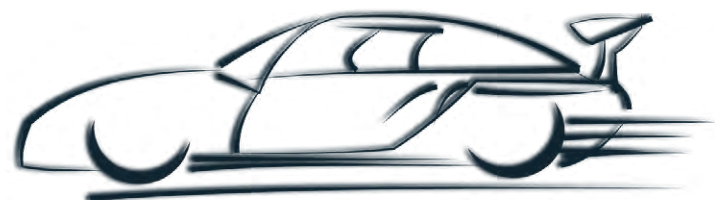
대표 김태종

- ☑ 자동차정비 일체
- ☑ 사고, 보험수리 대행
- ☑ 정기, 종합검사 대행

Tel. 031)906-7962

Fax. 031)906-7965

Mobile.010-3161-79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73번길 7-4 (백석동 1249-1)

대성사 부친, 항일독립군에서 국가유공자로 100년 유가족 1년 여 노력 끝에 고인의 영예가 세상 밖으로

광복 76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4일 독립유공자 포상된 애국지사 고 손기현 님은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 대성사님의 부친으로 일제 강점기 일제의 국권침탈을 온몸으로 항거하며,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1883년 경남 밀양 산외면 다죽리에서 출생한 손기현 님은 서른 살이 되는 1912년 늦가을 만주 서간도로 이주하여 서로군정서 산하 한교공회 외 교원으로 연락 및 무기 조달에 관여하였다.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이후 일제의 간도지방 독립단체를 소탕하는 소위 ‘경신작전’ 때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 재판 후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년 만인 1921년 여름 출소를 하였다.

지난해부터 종단이 종조 일대기를 편찬 중 대성사의 행장 중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 시기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여러 역사적 문건을 확인하는 가운데 부친 손기현 님이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처의 기록에 따르면 유가족 미확인으로 고인의 사망 날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어 고인의



유가족 왼쪽부터 손기현 님의 외손자 신우철, 증손자 손익상, 손용수 씨

명에 회복과 국가가 보관 중인 훈장과 대통령표창을 찾기 위해 1년 여 간의 노력과 절차를 걸쳐 유가족임을 확인 받았다. 드디어 지난 8월 24일 광복 76주년을 맞아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유공자 포상에서 항일운동 100년 만에 고인의 영예가 증손자인 손익상(孫益祥)에게 전달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하객의 참석을 제한해 손기현 님의 외손자 신우철 씨, 손기현 님의 증손

이자 원정 대성사님의 손자 손용수 씨가 참석했다. 손용수 씨는 “남은 가족들은 모두 선대가 겪었을 고난의 역사를 상기하며 늦게나마 표창이 서훈되신 걸 함께 축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유가족들은 이 일의 시작을 알렸던 일대기 집필 김천 작가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원 기자

동해중 학생 2명, 영재학교 합격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 3학년 정운혁, 김효준 학생이 한국과학영재학교에 합격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KIST 부설로 과학 영재성과 잠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영재학교다. 송인근 교장은 두 학생의 합격 소식 후 학부모를 함께 만나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동해중 제공

총지스케치

고맙습니다

서울경인교구 방생 금 210만원 회사

총/지/문/답 ⑫ 양부 만다라

자료사진=태장계만다라(좌 상단), 금강계만다라(우 상단), 총지사 본존(하단)

불교총지종 서원당에는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을 본존으로, 좌우협시 후불탱화로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를 모십니다.

이를 밀교의 ‘양부만다라’라고 하는데, 밀교의 정수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 밀교의 교리와 수행체계, 그리고 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하는 불보살과 그 권속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징적이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상징주의 철학이면서 신비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밀교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한눈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태장계만다라’는 『대일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사방의 사불과 많은 보살, 명왕, 천 등을 배열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우주가 전개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장계만다라’는 대비(大悲)하신 부처님의 마음, 보리심(菩提心)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안에서 인간과 우주가 불리일체(不離一體)가 되어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 즉 교화활동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과 같이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깨달음을 본체로 한다는 만다라라는 뜻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경』의 실천 철학을 도상화(圖像化)한 것으로 1,461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불보살과 제존들이 중앙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대일여래의 별덕(別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언 수행자는 이 만다라를 통하여 그 제존(諸尊)들의 덕성(德性)을 체험하여 마침내 대일여래와의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열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유하야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부산,경남교구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032)528-2742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제주,제주교구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설판재자(設辦齋者) 공모불사

고려시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한국 밀교를 이 땅에 다시 꽃피우게 하신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1907~1980)의 일대기가
최초로 책으로 출간됩니다.

한 시대를 치열히 살아간 밀교 수행자이자 시대의 모순과 아픔을
종교적으로 구제하려한 선각자 원정 대성사.
밀교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리셨으며,
정통밀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열어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대비원력(大悲願力)으로
1972년 불교총지종을 세우셨습니다.

금번 일대기는 말법시대 밀법으로 수행의 근본을 세운 원정대성사의 삶을 통해,
현대 한국 밀교 태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총지종의 종지와 수행법, 밀교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창종 50주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교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대성사님의 일대기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원정 대성사님의 삶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
전법의 역사를 길이 전할 역사적인 출간을 알리며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엮어내는 소중한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설판재자(設辦齋者) 공모불사'를 시작합니다.

한등 동참금 1만원(동참자는 책 뒷면 명단 수록 및 일대기 출판 후 자택 배송)

설 판 기 간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 참 방 법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240942 예금주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불사 동참 후 성명과 주소를 일대기 담당자(☎ 070-5178-0215~7) 앞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설판(設辦) 이란?

설판(設辦)의 설(說)은 설법회, 불사(佛事)의 모임을 말합니다. 판(辦)은 '힘쓰다, 주관하다'라는 의미로 불사의 중요하고도 큰 부분을 맡아 신심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설판재자(設辦齋者)란 불사나 법회를 베풀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담당하여 애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설판공덕은 부처님의 일을 완성하는 불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법회를 원만성취하도록 하는 공덕이므로 불보살님의 감화력이 모든 중생에게까지 두루 미치게 하며, 결과적으로 내 작은 정성의 힘이 못 중생을 제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설판재자는 바로 이 공덕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